

이인영, 오늘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접견...남북교류 의견교환

기자 입력 : 2020.08.18 08:11:30 수정 : 2020.08.18 08:12:42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남북 교류협력 구상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기로 했으며, 이번 접견은 해리스 대사가 이 장관의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접견에서 해리스 대사에게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정책 구상 등을 설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통일부는 작은 교역 정책이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되는 만큼 한미 워킹그룹 논의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소통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과 한미 워킹그룹 운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워킹그룹의 경우 해리스 대사가 지난 1월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언급해 '무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